

益齋 李齊賢 墓誌의 서술 방식

윤상림*

|| 차례 ||

1. 서론
 2. 일화에 의한 입체적인 묘사
 - 1) 국가에 대한 충성심
 - 2) 고매한 인품
 3. 간결하고 평면적인 기술
 4. 결론
- 참고문헌

【국문초록】

益齋 李齊賢은 복잡다난했던 元 간섭기에 고려 왕조를 위해 충성을 했던 인물들의 묘지명에서 일화를 통해 故人の 행적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일화는 찬술자 益齋가 직접 보고 들은 것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고령을 구하려한 故人の 충성심과 고매한 인품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충성심과 관련된 일화에는 益齋가 직간접적으로 등장하며, 비록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도 일화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어 일화는 故人뿐만 아니라 益齋에게도 또한 의미 깊은 사건들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충성심을 보이는 등의 팔목할 만한 행적이 없는 평범한 인물의 경우는 故人과 관련된 행적을 간결하게 평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주로 官爵·德·壽를 칭송하는 ‘達尊之三耆’가 중심 주제가 되는 의례적인 형태로서, 행적이 소략한 대신 請命 과정이나 관작·가계에 대한 기술이 상대적으로 상세하다

이처럼 益齋가 찬술한 고관의 묘지명에서 서술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관리의 최고 덕목은 충성심이라는 기준으로 故人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서술 방식을 선택했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기 때문이다. 즉 찬술의 대상은 故人の 삶이지만, 형상화되는 것은 益齋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자신의 가치인 것이다.

주제어 일화, 묘사, 충성심, 인품, 기술, 평범, 찬술자, 가치관

1. 서론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묘지명은 고구려 冬壽의 것으로 357년에 쓰여졌다.¹⁾ 이로부터 732년에 쓰여진 발해 貞孝公主의 묘지명까지 약 10여 편만이 신라 시대까지의 작품으로 남아 있다. 고려의 묘지명은 약 30편인데 古文運動의 영향²⁾으로 13-14 세기에 이르러 하나의 독립된 文體로 분류되기 시작하였다.

묘지명은 行狀을 가족이 준비해서 대개 文翰職에 있는 관리들에게 부탁해서 썼는데, 행장을 기초로 한다 하더라도 묘지명은 ‘褒揚’ 위주의 글이므로 귀감이 될 만한 주요 행적만을 선별해서 구성한다. 따라서 묘지명에 그려진 故人이 실제의 생전 모습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적 결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故人의 모습은 칭송이라는 찬술 의도에 따라 整形化된 인물이라는 점은 묘지명이 갖는 의식문으로서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묘지명의 일반적인 중심 주제는 官爵·德·壽라고 하는 이른바 ‘達尊之三者’로서, 故人의 성명, 역임한 관작, 성품, 죽음과 묘소의 위치, 차자손에 해당 하는 내용이 약간의 순서를 달리할 뿐 형식상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故人의 삶을 평가하는 찬술자의 안목에 따라, 또한 삶을 바라보는 찬술자의 인

1) 허홍식 편, 『韓國金石全文』-古代, 아세아문화사, 1984

2) 이정임, 「高麗時代 碑誌 文學 研究」, 고려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5, 19면.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출판부, 1998, 137-142면.

김춘주, 「『東文選』 所載 墓誌銘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99, 15면.

식에 따라 역점을 두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³⁾

益齋 李齊賢(1287-1367)은 14세기 무신집권기가 끝나면서 고려가 전면적으로 元의 지배하에 놓여 있던 시기의 인물로 古文倡導의 주역으로 인정되어 왔다. 『益齋亂藁』에 수록된 90여 편의 散文은 古文的 典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益齋의 묘지명은 대부분 2품 이상의 고관이거나 그 부인들과 왕족들의 것이다. 이 글에서는 益齋가 찬술한 고관들의 묘지명을 중심으로 행적의 서술 방식과 거기에 반영된 益齋의 의식을 살펴 본다.

2. 일화에 의한 입체적인 묘사

일화는 어떤 인물과 관련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짧은 이야기로, 인물의 독특한 언행을 입체적인 묘사를 통해 그 핵심이 되는 형상을 표현할 수 있다. 일화로 구성된 행적에는 인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는 대화가 함께 등장한다. 이러한 직접화법의 사용은 인물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 평면적인 기술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피하고 진실감과 생동감을 더해 주고 있다.⁴⁾ 이러한 일화 속의 대화는 인물 묘사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평면적인 기술보다 인물 형상을 입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

묘지명은 故人을 칭송하는 것이 목적인 글이므로, 묘지명에 사용된 일화는 故人을 칭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益齋가 묘지명을 찬술할 때 일화는 故人의 충성심과 고매한 인품에 관련된 것들이다.

3) 정순희, 「高麗 墓誌의 敘述의 特性 -『高麗史』立傳者를 대상으로-」,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32면-34면.

4) 吳洙亨, 「柳宗元散文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2, 265면.

1) 국가에 대한 충성심

일화를 사용한 묘지명 중 가장 많이 등장한 일화는 고려 왕조와 고려 왕이 위난을 당했을 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려 했던 故人の 行적이다. 충성심이 발현되는 상황은 늘 극적이며, 찬술자 益齋의 존재는 일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정치적 업적이 강조되므로, 관작이나 가계에 대한 기술은 소략하거나 생략되기도 한다.

(1) 忠烈

고려 왕조와 고려 왕이 위난을 당했을 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려는 충신의 모습은 일화 중심으로 구성된 묘지명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가1-1) 毅陵⁵⁾이 京師에 억류된 지 5년에 瀋王⁶⁾이 천자에게 충애를 얻게 되자 여러 못된 무리들이 나라 안 사람들을 위협하고 꺾어 瀋王으로 왕을 삼가고 上言하게 했다. 公과 동생 元尹인 禰만이 狀에 서명하지 않았다. 어떤 이가 公에게 사적으로 말하기를,

“衆議를 어기고 혼자만 다르게 하다가 후회하게 되면 어찌시려오?”

하자, 公은 꾸짖었다.

“신하로서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은 직분이니, 무슨 후회가 있겠소이까?”⁷⁾

(가1-2) 永陵⁸⁾이 석방되어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복위한 지 4년 동안 참소가 수없이 많았다. 천자가 襲衣와 尊酒를 하사하자 籠普가 가져왔고, 朶赤을 잇

5) 충숙왕의 廟號.

6) 王暉.

7) 이제현, 앞 글, “毅陵見留京師五年, 瀋王得幸天子, 群不逞之徒, 誘脅國人, 上言願得瀋王爲主 公與弟元尹禰, 獨不署名狀中 或私於公曰, ‘違衆自異, 若後悔何?’ 公罵曰, ‘臣無二心職耳, 何後悔之有?’”

8) 충혜왕의 廟號.

달아 보내시어 德帛을 반포하게 하셨다. 왕이 나가서 마중하러 하니 朶赤이 칼날을 들이대고 왕을 잡아 말에 싣고 달아났다.

공은 그때 집에서 있다가 갑자기 변이 났음을 듣고 달려가서 따지지 못한 것을 통탄하였다. 籠普에게 가서도 의리로 감동시키지 못할 것을 알고, 물러나와 宰相과 함께 元에 애걸하려고 했다. 모두 말하기를,

“陪臣으로서 천자의 위엄을 범하면 큰 꾸짖음이 있을까 두렵소이다.”

하니, 공이 의분을 느껴 개탄하면서 그들을 꾸짖었다.

“임금과 신하는 아버지와 아들이요, 아들이 아버지를 구하는데 누가 죄를 주겠소이까? 죄가 두려워서 아버지를 구하지 않는다면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소?”

하였다. 이에 비로소 上書할 것을 의논하였으나, 끝내 못하고 말았다. 공은 종신토록 분통함이 말과 얼굴에 나타났었다.⁹⁾

(가2) 성산군 이공이 돌아간 지 1년이 넘어서 내가 비로소 공을 위하여 묘지명을 찬술한 것은 대개 연유가 있어서였다. 曹頤의 변란 때에 천자가 永陵¹⁰⁾을 불러 알현하게 했는데, 丞相 伯顏이 유감을 품고 永陵으로 하여금 曹頤의 무리와 마주 대하여 서로 辨明하게 하자, 공이 비분강개하여 내게 말했다

“내가 승상 앞에서 얼굴을 보면서 하소연 하면 그 뜻을 돌릴 수도 있을 텐데, 군대가 문을 지키니 그 집에 가서 호소하질 못하겠네. 다행히 그가 城 남쪽에 가서 사냥을 한다고 허이. 나는 길에서 上書를 해서 말발굽 아래 머리가 부쉬진다고 해도 우리 임금의 입장을 밝혀야겠네. 그대는 붓을 잡아 나를 위해 上書를 써 주게나.”

밤에 일어나 목욕하고 닭이 울기를 기다려 출발하려 하였는데, 伯顏이 이날 실각하였다. 나는 공의 의로움에 감격하여 말하였다.

“죽고 사는 일은 미리 기약할 수는 없으나 공은 저보다 20년 위의 어른이시니, 꺾꽂으시다면 못 쓰는 글을 아끼지 않고 幽堂의 銘을 짓겠습니다.”

공은 웃으면서 허락하셨다.¹¹⁾

9) 李齊賢, 앞 글, “永陵得釋東歸. 襄曆四年, 讒構蝟毛, 天子賜以襲衣尊酒, 而籠普寔來, 繼遣朶赤, 頒德音, 王出迎, 朶赤露刃扶王, 載一騎馳去. 公時家居, 聞變遽起, 痛不及奔問, 詣籠普, 又知其不可以義感, 退與宰相, 言所以乞哀朝廷者. 威曰, 陪臣犯天威, 恐有大譴, 公慷慨責之曰, 君臣父子也, 子而求父, 孰以爲罪? 外罪不求, 可謂子乎? 於是, 始議上書, 卒不果, 公終身憤憤, 形於言色.”

10) 충혜왕의 廟號

(가3) 이때 본국 사람들이 파당을 지어 서로 호소하므로, 원 나라 조정에서 內地처럼 省을 세울 것을 의논했다. 公이 前 재상 金廷美¹²⁾ · 益齋 등과 상소하여 득실을 말해 마침내 그 계획을 중지시켰다. 潘府¹³⁾의 관원들이 또 고려의 잘잘못을 들어 장차 廟堂에 고하려고 하자, 公만이 홀로 서명하지 않았다. 맨 나중에 주모자들이 府中에 나와 錄使를 시켜 종이의 먹을 가져다 서명을 하게 하자, 公은 소리 높여 말했다.

“내가 일찍이 재상으로 있었는데 녹사들이 나를 헐박하려 드느냐?”
하니, 모두 기가 질렀다.¹⁴⁾

(가4) 지금 왕이 정사를 이어받자 다시 기용해서 僉議評理로 삼으니, 세 속의 소위 五宰라는 것이다. 얼굴이 몹시 야위고 귀가 어두웠지만, 일을 당하면 씩씩하여 조금도 나태하지 않았다. 하루는 判三司 李齊賢에게 말했다.

“우리 임금이 어리셔서 재상에게 다 맡기시는데, 저 소인배들이 벼슬만 차지하고 앞서 실패한 일들을 경계삼지 않는구료. 나는 벼슬에서 물러나서 저들과 함께 못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 않은데 公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齊賢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저도 전일 두세 가지 계책을 집정자들에게 알렸지만 시행을 보지 못했습니다. 늘 용단 있게 물러나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겼거늘, 감히 公의 말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였다.¹⁵⁾

11) 李齊賢, 「有元高麗國誠勤翊贊勁節功臣贈諡文烈公李公墓誌銘」, 『益齋亂藁』 권 7, 「曹頤之變, 詔徵永陵入覲. 至則, 丞相伯顏畜宿憾, 至使與不臣臣, 兩造而置辭. 公慷慨發憤, 謂余曰, ‘吾面訴丞相前, 其意可回, 列戟守門, 莫叫其閤. 幸其出田城南, 吾當上書道左, 碎首馬蹄之下. 死明吾君, 吾子其把筆爲吾書’ 夜起沐浴, 鷄鳴將行. 伯顏適以是日敗. 余感其義, 語之曰, ‘死生不可期. 然公長我且二十歲, 有不諱, 不敢愛鄙文以銘幽堂.’ 公笑許之.”

12) 고려 때 문신 金怡(1265-1327)

13) 충선왕이 潘陽王을 겸하다가 왕위는 충숙왕에게 넘겨 주고, 조카 焜를 潘王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潘陽王이란 단지 지위만 있을 뿐 영토는 없었다.

14) 李齊賢, 앞 글, “會本國人, 分黨相訴, 朝廷議立省, 比內地. 公與前宰相金廷美·李齊賢等, 獻書陳利害. 遂寢其議. 潘府僚佐, 又疏國家得失, 將言之廟堂. 公獨不肯署. 最後, 主謀者同坐府中, 令錄事, 持紙筆請書. 公厲聲曰, ‘吾嘗備位宰相, 僉錄欲相脅耶?’ 衆沮喪.”

(가1-1)과 (가1-2)는 金倫(1277-1348)의 일화이다. 金倫은 金就礪 장군의 증손이며 益齋와는 사돈간이었으며 친분 또한 두터웠다. (가1-1)은 1313년 元에서 돌아온 충숙왕이 정치를 소홀히 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여 혼란이 심해지자, 瀋陽王 焮가 왕위를 찬탈할 목적으로 元 나라에 무고하여 1321년에 元 나라에 억류되어 5년간 돌아오지 못했다. 이때를 틈타 瀋陽王 焮를 고려 왕으로 세우려던 무리들이 연판장을 돌렸을 때 金倫이 서명을 거절했던 일화이다. 어떠한 위협에서도 절의를 지키는 志士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일화에 益齋는 표면상 등장하지 않지만, 당시 益齋는 燕京에 가서 이 사실을 해명하였다. (가2-2)는 충혜왕이 征東省에서 元 나라 사신인 高龍普와 타치(朶赤)에게 잡혀가자 왕을 구출하기 위해 金倫이 전력을 다했으나 모두 元 나라 황제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 서명하지 않아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던 일화이다. 이 일화에도 益齋는 표면상 등장하지 않지만, 글을 올려 사면을 요청하였다.

金倫의 일화는 두 가지 모두 고려 왕이 元에 억류되었던 사건과 관계가 있다. 元 간섭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내국인의 무고로 국왕들은 元 나라에 억류되거나 잡혀 간다.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흔들림이나 두려움 없이 왕을 구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益齋의 관리상에 합당하였을 것이다. 益齋 자신도 두 경우 모두 왕의 구명을 위해 직접 원 나라에 가기도 했고 상서를 올리기도 했다. 이 일화는 金倫의 충성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무고를 일삼는 신하들과 방탕한 생활을 하던 고려 왕에 대한 비판이 암시되어 있다.

(가2)는 李兆年(1269-1343)의 일화로 묘지명의 찬술 동기와 李兆年에

15) 李齊賢, 앞 글, “今王嗣政 起復爲僉議참로, 世所謂五宰者, 貌甚癯, 耳頗重聽. 然臨事慷慨 不少懈. 一日語判三司事李齊賢曰, ‘吾君幼 委任宰相, 彼負車乘者, 不誠覆轍, 吾其引避, 毋俱爲十手所指, 公當云何?’ 齊賢謝曰 ‘僕前以二三策 曉執政者, 未見施行 常愧不能勇去 敢不惟公言是從’”

대한 益齋의 존경심이 잘 드러나 있다. 도입부는 묘지명을 찬술하는 동기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암시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도한다. 충혜왕(1315-1344)은 충숙왕의 이들로 1328년 세자에 봉해졌고 元 나라에 볼모로 가 있다가 아버지 충숙왕에게 양위를 요청하여 元 나라 文宗에 의해 왕으로 책봉되어 1330년 귀국하여 즉위하였다. 위의 일은 그에게 욕을 당한 서모 慶華公主의 밀고로 당시 왕위 찬탈을 기도하던 曹頤 등 瀋陽王 일파가 國印을 永安宮에 감춘 뒤 군사 천여 명으로 변란을 일으키자, 이를 평정하고 曹頤를 죽인 후 복위한 사건이다. 다음해 元 나라 刑部에 투옥당해 경화공주의 사건에 관해 瀋陽王 일당들과 대질하게 되었으나, 그를 미워하던 伯顏, 즉 빠이엔투그스(伯顏투秃古思)의 실각으로 석방되어 귀국하였다.

伯顏이 실각되지 않았더라면 길에서라도 上書를 하겠다던 李兆年의 계획은 실행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李兆年의 거취는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益齋는 李兆年의 비분강개한 모습을 본인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일개 元의 臣僚인 伯顏에게 충혜왕이 수모를 당하는 이 사건이 생기자, 益齋도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나는 우리 임금의 아들임을 알 뿐이다”¹⁶⁾(吾知吾君之子而已)하고 元의 서울로 가 글을 올려 해명하려 했다. 몽고의 지배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政變에 죽음을 불사하고 伯顏에게 호소하려 했던 李兆年의 충성스런 모습에 매우 감동했으며, 이러한 감동은 긴박한 상황 묘사와 李兆年의 憂國衷情 어린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益齋가 自意로 묘지명을 찬술한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 李兆年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심이 매우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李兆年의 묘지는 당시의 상황 전개와 말을 통해 立傳하게 된 동기와 故人の 진실한 삶이 드러나게 하여 일단 쓰게 되면 칭송 일변도로 일관되는 통상의 묘지과는 다른 감동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16) 李穡, 「鷄林府院君諱文忠李公墓誌銘 并序」, 『東文選』 권126.

감동을 통해 독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청해서 李兆年의 묘지명을 썼던 益齋의 마음에 동감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일화는 故人の 충성심을 칭송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당시 고려 사회가 직면했던 어려움이 왕들의 문란한 사생활에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암시성은 전적으로 益齋의 서술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묘사라는 간접적 인물 제시와 함께 독자로 하여금 길의 깊이를 더해 준다.

(가3)은 崔誠之(1265-1330)의 일화이다. 고려의 내분으로 元이 立省策을 주장하자 崔誠之는 前 재상 金廷美·益齋 등과 상소하여 득실을 말해 마침내 그 계획을 중지시켰다. 또한 潘府의 관원들이 또 고려의 잘잘못을 들어 장차 廟堂에 고하려고 하자, 崔誠之만이 홀로 서명하지 않았다. 주도자들이 강제로 서명을 하게 해도 오히려 날카로운 힐문으로 단 한마디에 좌증을 제압하는 것으로, 그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의에 굽히지 않는 강직하고 확고한 신념의 소유자로 형상화 하고 있으며, 동시에 立省에 반대하는 崔誠之의 단호함을 묘사하면서 ‘본국 사람’(本國人)이라든지 ‘潘府 관원’(潘府僚佐)으로 상징된 불안한 국내 정치에 대한 비판을 암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益齋는 崔誠之의 墓誌銘에서 그가 權漢功·朴景亮 등과 투옥되었던 일과 충신왕이 吐蕃에 유배될 때 몸을 피하여 나타나지 않았던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益齋가 崔誠之의 묘지명을 찬술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행각을 쓰지 않은 것은 지극히 의도적인 서술 행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다. 故人の 행적을 일정 부분 폐기하거나 강조하는 것은 故人の 일생을 좀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의해 재구성하기 위해서다. 益齋가 이 일화를 들은 것은 그만큼 立省策이 실현될 경우 고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지극히 우려를 했고, 다른 과실에도 불구하고 故人이 立省策의 득실을 元에 진정하여 그 논의를 중지시킨 것을 그만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益齋도 「在大都上中書都堂書」¹⁷⁾에서 立省의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처럼 선별되는 행적은 찬술자의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특정 행적을 일화에 의해 입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적을 선별하는 기준은 故人에 대한 이해의 틀이며¹⁸⁾, 찬미일색의 내용 구성으로 자칫 阿諛文字로 전락할 위험을 지니고 있는 묘지명이 문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가4)는 閔漬의 외손이며 武將 가문의 출신이면서도 士大夫 못지 않은 굳은 지조와 절의가 있던 羅益禧(?-1344)의 충직한 모습을 보여 주는 일화이다. 어린 충목왕이 즉위하면서 정치가 집정자들에 의해 좌지우지 당하자, 당시의 어지러운 상황으로 볼 때 관직에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사임할 뜻을 益齋에게 전했던 일화이다. 羅益禧는 충열왕 말기에 神虎衛護軍이 되었는데 충선왕이 新法을 제정하자 이를 반대하다가 면직당한 뒤, 10년 뒤 檢校上護軍이 되고 商議評理에 올라 錦城君에 봉해졌다. 1344년 충목왕이 즉위하자 僉議評理가 되었으나, 때가 아니면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사임하려는 태도에서 물러날 때를 아는 과감함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 일화에서는 益齋가 羅益禧와 흥금을 털어놓는 사이로서 함께 퇴임할 것을 결정한다.

羅益禧의 일화는 일견 다른 일화와 성격이 다르게 보이지만, 益齋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점과 퇴임에 배경이 된 당시의 집정자들의 월권 행위에 동조하지 않는 단호한 행위로 고려 왕조에 충성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집정자들에 대한 비판의 암시 또한 다른 일화와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17) 李齊賢, 『益齋亂藁』 권6.

18) 정순희, 앞 글, 3면.

(2) 忠諫

충간에 대한 일화는 李兆年에게만 두 가지가 있다. 충간이란 왕의 노여움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실제 李兆年은 간언 뒤 은퇴한다.

(나1) 처음에 永陵이 조칙을 받들고 원에 가서 宿衛할 적에 춘추가 젊어서서 자못 삼가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다. 공이 경계할 것을 생각하였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자 나아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대신·귀척들과 어깨를 나란히하여 천자를 섬기시니, 날마다 더욱 삼가셔야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예의를 버리고 정욕을 방종히하여 누를 부르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전하의 과실이 아니오라, 전하께서 보모의 집에서 성장하셨으므로 함께 노는 사람이 무퇴한들이 많고, 그 뒤에서 朴仲仁·李仁吉 등이 좌지우지 하였으니, 전하께서 누구에게 바른 말을 듣고 바른 일을 보았겠습니까? 대개 儒者는 朴拙하지만 모두 경서를 익히고 염치를 알거는, 전하께서는 그들을 지목하여 儒生이라 하시니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하께서는 아첨하는 무리를 멀리 하시고 점잖은 선비와 친하시어, 행실을 고치고 스스로 신칙하시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천자의 위엄이 지척에 있으니 엄하지 않겠습니까?①9)

(나2) 永陵이 본국으로 돌아온 다음해 겨울이었다. 왕이 北宮에서 걸어 松岡에 이르러 참새를 잡으니, 공이 지름길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전하께서는 明夷던 때②0)를 잊으셨습니까? 지금 못된 소년들이 위엄을 빌어 부녀자를 겁탈하고 재물을 빼앗아 백성이 삶을 즐거워하지 못해 조만간 禍가 이르러서 지난날보다 더 할까 두렵습니다. 이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잘한 장난이나 하시고 계십니까?”

19) 李齊賢, 앞 글, “初永陵奉詔宿衛, 春秋富, 頗以不謹聞, 公思有以戒之, 因告歸, 進曰, “殿下與大臣貴戚, 比肩事夫子, 宜日慎一日, 何乃棄擯縱情, 以速累乎? 然此非殿下之過, 殿下長於阿保之家, 所共遊, 多無賴子, 其後朴仲仁·李仁吉, 實在左右之, 殿下孰從而聞正言見正事乎? 夫儒者, 雖朴拙, 皆能習經書, 識廉恥, 殿下目之爲沙簡里, 此何等語耶? 殿下能遠佞倖之徒, 而親儒雅之士, 改行自飭, 則可, 不然, 天戚咫尺其嚴乎?”

20) 『周易』의 卦名으로 어진 사람이 때를 얻지 못하고 참소와 농간이 두려워 그 지혜를 나타내지 못하고 숨는다는 괘

永陵은 처음에는 매우 노하셨다가 이윽고 고맙다고 하면서 보냈다. 이미 나갔는데 從者가 못된 소년에게 매를 맞았다. 자기 일을 말했기 때문이었다. 공은 곧 고향으로 돌아가 세상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²¹⁾

(나1)과 (나2)는 李兆年이 충혜왕께 간언한 일화이다. (나1)은 元에 있을 때 李兆年이 왕의 문란한 생활에 대해 간언한 것인데, 결국 충혜왕은 간언이 듣기 싫어 담을 넘어 달아났다.

(나2)는 귀국한 충혜왕이 여전히 擊毬·淫戲에 빠졌고 夜行을 하다가 불랑배에게 두들겨 맞는가 하면, 무리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고 백성 소유의 재산을 빼앗았으며, 賣官·私貿易으로 재화를 모아 유흥에 탕진함으로써 나라는 극히 혼란한 상태가 되었다. 李兆年은 충혜왕이 1340년 복위하자 政堂文學에 승진하여 藝文館大提學이 되어 星山君에 봉해졌으나, 왕의 문란한 생활에 대해 여러 번 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다음해에 사직하였다.

‘못된 소년’(惡少)이란 충혜왕의 남색의 대상이었던 소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明夷의 때란 충혜왕이 元에서 돌아와 1331년 즉위하였다가 이듬해 충숙왕의 복위로 다시 元으로 들어가 1340년에 복위할 때까지 어려웠던 시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충혜왕이 고려로 돌아온 다음 문란한 생활이 계속되자, 그 일이 다시 元에게 내정을 간섭하는 빌미를 주게 될까 걱정이 되어 李兆年은 지름길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옛날 元에서 겪던 어려움과 충혜왕의 사소한 장난을 간곡한 어투로 만류한다. 이 부분에서는 李兆年의 諫言만 수록하고 충혜왕의 반응은 대화가 아닌 문장으로 처리하였다. 왕의 부정적인 반응을 간단한 서술로 표현해버림으로 해서 오히려 諫

21) 李齊賢, 앞 글, “永陵歸國, 明年冬, 嘗步自北宮, 彈雀于松岡. 公逕造跪曰, ‘殿下寧忘明夷之時乎? 今惡少假威略婦女, 攘財貨, 民不樂其生. 朝夕禍至, 恐往者之不啻, 此而不卹, 顧玩細娛乎?’ 永陵始甚怒, 已而謝遣之, 既出, 從者爲惡少所毆, 以其言己事也. 公卽歸臥故園, 不交人間事.”

말이 강조되고 있다. 충심어린 李兆年의 諫言을 보고 제후에게 간쟁하는 신하가 다섯만 있으면 비록 無道하다 하여도 나라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칭송하고 있다.²²⁾ 이러한 칭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益齋는 무엇보다도 죽음을 불사하고 임금에게 諫言하는 李兆年의 강직하고 충성된 태도를 존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도 왕에게 뜨거운 충성심을 보였던 李兆年이었지만, 충혜왕의 총애를 받은 소년에게 종자가 매를 맞자, 이 일로 致仕한 뒤 세상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故人の 삶이 작자의 인식의 틀을 통해 전달된다면, 李兆年의 묘지명은 간언하게 되는 상황과 말을 통해 立傳하게 된 동기와 故人の 진실한 삶이 드러나게 된다.²³⁾ 구체적인 사건과 육성을 통해 전달되는 忠臣의 모습은 칭송 일변도로 일관되는 통상의 묘지명과는 다른 감동을 얻게 한다.

3) 善政

선정은 충열이나 충간과 같이 왕 앞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충성은 아니지만, 애국하는 마음이 없이 애민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으므로, 또한 충성심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 金倫의 묘지명에는 권신가의 부당한 횡포에 대항하다가 탄핵을 받아 지방관으로 좌천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던 일화들이 있다

(다1) 공이 護軍이 되었을 때 洪忠正의 아들 藩의 천거로 辦正都監副使가 되었을 때 일이다 세력 있는 집안이 시골의 한 백성과 여종 하나를 두고 다투게 되었는데 그의 자손은 1백 명이나 되었다. 공은 그 문서를 열어 보고서는

22) 李齊賢 「有元高麗國誠勤翊贊勁節功臣贈諡文烈公李公墓誌銘」 『益齋亂藁』 권 7

23) 김춘주 앞 글, 20면.

말하기를,

“이것이 某代의 某 관리가 某年 某月에 여러 아들과 함께 문서를 만든 것으로 좀 세월이 지났다. 여종의 아들과 손자의 나이를 따져 선후를 비교해 보니 서로 다르며 여종의 이름이 한 글자 희미한데, 이것은 鱸를 魚로 고친 것이 아닌가? 某 관리의 여러 아들에게 모두 후손이 있으니 집마다 문서 한 권씩은 두었을 것이다. 어찌 그것을 가져다가 그 다름을 살펴 보지 않느냐?”

공의 말과 같이 살펴 보자, 세력 있는 집안이 굴복하였다 24)

(다2) 공이 侍承이 되었을 때 甲과 乙 두 사람이 식구 때문에 다투었다. 乙이 말하였다.

“선대에 臺閣에 소송했었는데, 知臺의 성은 許氏이고 이름은 잊었습니다. 분별해서 명백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얻은 식구는 죽어버리고 후손이 없었으나, 乙이 얻은 식구는 다행히 번식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서 문서를 잃어버리자, 갑은 화재를 다행으로 여겨 을을 무고하여 식구들을 하나로 합치려 합니다.”

공은 묵묵히 세월을 계산해 보고 말했다.

“이른바 許知臺는 반드시 우리집 文敬公일 것이다.”

하고, 관리에게 당시의 印簿를 검열하게 하니, 나누어 준 가구의 이름과 수효가 함께 보존되어 있었다. 그것으로 갑을 힐문하니 갑이 또한 굴복하였다.

공이 일에 대하여 정밀하고 자세함이 이와 같은 것이 많았다.25)

(다1)의 일화는 여종을 두고 시비가 생긴 訟事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

24) 李齊賢, 「有元高麗國翰誠守義協贊輔理功臣壁上三韓三重大臣彦陽府院君贈諡貞烈金公墓誌銘」, 『益齋亂藁』 권7, “其爲護也, 洪忠正子藩, 舉以辨正都監副使, 有巨室, 與鄉民, 爭一女奴, 子孫百口. 公開其籍曰, ‘此某代某相某歲月, 與諸子, 立券者, 距今茲若干年矣. 齒女奴子若孫, 以較先後相懸, 而女奴之名, 一字微偏, 豈改魚爲魯者乎? 某相諸子, 俱有後, 當家置籍一本, 盍取而考其異同?’, 如其言. 巨室遂誦.”

25) 李齊賢, 앞 글, “其爲侍承也, 某甲乙二人爭家口. 乙曰, 先世嘗訟于臺, 知臺姓許忘名, 別白而分與之. 甲所得物, 故無由擊. 乙家行得繁殖. 因遭火亡其籍, 甲幸災, 誣乙爲兼併爾. 公默計歲月曰, 所謂許知臺, 必吾家文敬公也. 命吏檢當時印簿, 所分名數俱存, 以詰甲, 申亦誦. 其精詳多類此.”

리하는 金倫의 일 처리가 돋보인다. 원칙대로 공정하게 처리하여 세력 있는 가문을 패소시킨 金倫의 당당한 모습은 良吏의 典型이라 할 수 있다. 단조로운 인물의 典型性을 益齋는 金倫이 참고 문서의 소재를 추측해 내는 과정을 흥미롭게 묘사하여 극복하고 있다.

(다2)는 마지막 부분에서 益齋가 언급한 것처럼 주도면밀한 일처리를 보여 주는 일화로, 민심을 안정시키는 良吏로서의 일면을 보여 준다. 비록 일화형은 아니지만 총애를 받던 內臣의 잘못을 준엄하게 탄핵하여 州官으로 좌천되어서도 백성들을 宮室과 佛廟의 빈번한 使役에서 보호한 行迹²⁶⁾에서는 곳곳한 그의 성품과 良吏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良吏로서의 면모는 合浦에서 善政으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行迹²⁷⁾에서도 강조되어 있다.

2) 고매한 인품

일화 중심으로 구성된 묘지명의 주인공들은 元 간섭기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 아래에서 급변하는 政局을 益齋와 함께 헤쳐나갔던 인물들로, 羅益稀와 金倫의 묘지명에는 故人の 인품과 관련된 일화가 등장한다.

(라1) 공은 본래 武將 가문의 자손으로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히느라 글 읽을 틈이 없었다. 그런데도 천성이 지조가 굳고 절의를 사모하여 남과 시비가라기를 부끄러워했다. 모친께서 가산을 나누어 줄 때 노비를 특별히 40명이나 물려주자 공은 사양하면서 말했다

26) 李齊賢 앞 글. “內臣挾惑, 手毆五品郎殿門. 公劾論甚峻. 兼劾證左. 言不以實爲內臣地者. 內臣者方有寵. 證左亦達官. 大族排根. 公左官爲州. 時大修宮室及佛廟. 區民就役. 使者旁午. 皆憚公. 非不得已. 莫敢入境. 州人賴以息肩.”

27) 李齊賢 앞 글. “其鎮合浦也. 軍將不敢以緩急私撓民. 州郡不得以喜怒妄加於吏. 天子之使來觀之. 卒乘之肅. 號令之嚴. 無不悚然以敬. 及與之游畋. 左右馳射. 舍援屢中. 則又歡然以樂. 所至. 稱道不容口.”

“딸 다섯에 한 아들이 어찌 차마 구차하게 많이 얻어 자식 많은 부모의 인자함에 누를 끼치겠습니까?”

부인은 옳다고 여기고 허락하였다.²⁸⁾

(라2) 曹頤이 나올 일으켰다가 스스로 제 죽음을 재촉하자, 永陵²⁹⁾이 공에게 명하여 그 무리들을 巡軍萬戶에서 심문하게 하였다. 온 부중이 한 짓이 미워 심하게 고문하면서 심하게 다스리려고 하였다. 공은

“이 무리들은 曹頤의 선동에 빠져 그리 된 것이니 책할 수 있겠소? 만약 그들의 살이나 뼈를 다치게 하면 반드시 ‘내가 법을 마음대로 해서 강제로 굴복시켜 조정을 속인다’ 할 것이다.”

하고 刑을 늦추었다. 죄수들은 감동하고 마음으로부터 기뻐하며 重罪를 숨김이 없었다.³⁰⁾

(라1)의 일화에서는 羅益稀가 家産을 물려받는 데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형제간에 재산 때문에 화목을 깨지 않도록 배려하는 세심함이 돋보인다.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히느라 글 읽을 틈도 없었던 武將 가문의 자손이며 지조가 굳고 절의를 사모하여 남과 시비가리기를 부끄러워하는 성품과 형제를 배려하고 재산에 욕심내지 않는 태도를 일화 속의 대화를 통해 보여 준다.

(라2)의 일화는 曹頤의 殘黨을 심문했을 때의 일화로 金倫의 너그러운 성품을 보여 준다. 왕에게 불충하는 무리들에게는 더없이 준엄하고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던 그였지만, 殘黨들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 가혹하

28) 李齊賢, 「匡靖大夫都僉議參理上護軍羅公墓誌銘 并序」, 『益齋亂藁』 권7, “公自以將家子, 幼習武藝, 不暇讀書. 而天性耿介, 慕義絕, 恥與人爭訟. 母夫人分家産, 別遺臧獲, 爲口四十. 公辭焉曰, ‘以一男居五女之中, 烏忍苟得其贏, 以累鳩鳩之仁.’ 夫人義而許之.”

29) 충혜왕의 廟號.

30) 李齊賢, 앞 글, “曹頤搆亂, 永陵命公, 訊其黨于巡軍戶府. 一府嫉其從逆勇, 欲拷掠痛理. 公曰, 此輩註誤於曹頤指族, 何足責哉? 若使傷肌膚毀筋骨, 必謂我枉法強服. 以欺朝廷, 乃弛其刑. 囚感悅, 首罪無隱.”

게 다루는 것을 절제하여 그들의 마음을 회유하는 데 성공한다. 金倫은 일화를 사용한 益齋의 묘지명 중에서 가장 다채로운 면모를 가진 인물이다. 金倫의 묘지명은 여타 益齋의 묘지명에 비해 장편이고 장황하기까지 한 逸話와 行迹들을 통해 가장 완벽했던 儒者로서의 金倫을 그려내고 있다. 그 결과 金倫의 묘지명은 行迹 부분의 서술이 긴 만큼 인물평 또한 매우 길다.³¹⁾

이처럼 일화를 사용한 유형은 일반적으로 묘지명의 중심 주체가 되는 이른바 ‘達尊之三者’인 官爵·德·壽 중에서 특히 德에 해당하는 충성심과 인품이 강조된 형태이다. 일화 중심으로 구성된 묘지명의 주인공들은 元 간섭기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 아래에서 급변하는 政局을 益齋와 함께 헤쳐 나아가고 고려 왕실을 지키기 위해 일신의 안녕을 돌보지 않았던 충신들이다. 일화의 배경은 고려 왕조의 안위를 위협하는 위급한 상황으로 益齋 자신도 당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 했던 사건들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보여준 故人들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한 益齋는 그 사건들을 故人의 육성과 고려의 안위를 위협하던 인물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일화의 배경이 된 사건들은 故人뿐만 아니라 찬술자인 益齋에게도, 나아가서는 고려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3. 간결하고 평면적인 기술

益齋가 故人의 행적을 평면적으로 간결하게 기술한 유형의 주제는 고려

31) 李齊賢 앞 글, “公喜觀書, 多識典故, 有問響應無疑, 仁於宗姻, 信於故舊, 見其來, 必置酒, 竟日極歡, 聞其病, 每市藥, 造門相視, 悃悃如漢史, 而癡惡嘉善之公, 無擇於戚疎, 曠達若晉士, 而愛君憂民之切, 不渝於夷險, 故賢者慕其行, 不肖者畏其義, 街童巷婦, 聞稱竹軒, 亦能知其爲公也.”

시대 묘지 전반에 걸쳐 중심 주제였던³²⁾ 官爵·德·壽라고 하는 이른바 ‘達尊之三者’의 의례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故人の 성명, 역임한 관작, 성품, 죽음과 묘소의 위치, 차자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약간의 순서를 달리할 뿐으로 형식상 큰 차이가 없다.

(마1) 德陵³³⁾이 西蕃으로 귀양가 있을 때, 春軒이 광양군을 받들고 洮隴으로 달려가 위문했는데, 왕복 만리였지만 온화한 얼굴과 기쁜 얼굴로 더욱 공경하였으므로, 광양군이 편안하기가 집안에 있는 것 같았다.³⁴⁾

충숙왕이 입조하니 瀋王의 패거리들이 閹牆의 禍³⁵⁾를 일으켜 참소하는 일이 들끓어 온전한 사람이 드물었으나, 春軒은 몸으로 충숙왕을 모셨고 뜻은 그 義를 따랐으며, 정직하되 능히 공경하였으므로 서로 유감이 없었다.³⁶⁾

(마2) 15세에 進士가 되고 임금이 친림한 기묘년 과거에 급제했다 (중략) 한 번도 지방관으로 나가지 않았고, 한 번도 탄핵받지 않았다. 이것이 공의 약력의 전부이다.³⁷⁾

32) 정순희, 「高麗 墓誌의 敘述의 特性 -『高麗史』立傳者를 대상으로-」, 『정신문화연구』,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32면.

33) 충선왕의 廟號.

34) 李齊賢, 「有元高麗國匡靖大夫都僉議叅理上護軍春軒先生崔良敬公墓誌銘」, 『益亂叢』 권7, “德陵遜于西蕃, 春軒奉光陽君. 奔問洮隴, 往返萬里, 惋容愉色, 不懈益虔, 光陽君焉, 若在庭閭之中也.”

35) 형제간의 싸움이란 뜻으로, 1339년 瀋王 焜가 역모를 꾀하다 실패하자 元 나라에 충숙왕을 모함하여 사신 頭麟 등이 왕을 잡아갔는데, 이때 瀋陽王 焜를 고려 왕으로 세우려던 무리들이 연관장을 돌려 焜를 추대하려 했던 사건을 말함.

36) 李齊賢, 「有元高麗國匡靖大夫都僉議叅理上護軍春軒先生崔良敬公墓誌銘」, 『益亂叢』 권7, “忠肅王入朝瀋府, 用事者煽起閹牆之禍, 讒口交騰, 舉無全人. 春軒身從其居而志從其義, 直而能敬, 彼此無戚.”

37) 李齊賢, 「推誠翊祚同德輔理功臣重大匡脩文殿大提學學領都僉議使司永嘉府院君贈諡文正公權公墓誌銘」, 『益亂叢』 권7, “公年十五舉進士, 及己卯第, 中簾前試, (中略) 未嘗一補外寄一見彈劾. 此其凡也.”

마1)은 崔文度(?-1345)의 정치적 행적이다. 그의 묘지명은 사망일과 향년을 밝히는 訃告로 시작하여 請命으로 이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형식으로, 請命 과정에서 故人の 가계를 설명하여 請命 부분이 자세하다. 그런데 묘지명이 訃告에서 請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이한 점은 崔文度의 경우는 武官이며 益齋보다 6살 아래였던 故人에게 왜 ‘春軒先生’이라고 호명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혹자와의 대화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누가 이점에 대해 직접 물은 일이 있는지는 불분명 하지만, 그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바로 묘지의 正文이 된다. 崔文度의 묘지명에서 부고와 청명 부분을 제외한 故人の 행적 부분이 모두 대화로 이루어진 것은 ‘達尊之三者’라는 진부한 주제를 좀더 변화 있게 표현하려고 구성상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의 행적을 보면 왕을 성실하고 공경하게 모신 것을 알 수 있다. 일화를 사용하여 故人の 행적을 입체적으로 묘사한 인물들과 비교할 때 고려의 안위와 관계되는 극적인 사건을 해결하려 한 행적은 없다. 그 결과 故人の 생전의 모습은 일화에 의해 입체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2)는 益齋의 장인이었던 權溥(1262-1346)의 묘지명으로, 崔文度의 묘지명처럼 請命 부분이 자세하다. 서두에 장인과 사위라는 특별한 관계가 된 경위를 쓴 뒤 訃告에서 請命으로 이어진다. 請命 과정은 처남들의 말을 인용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喪主들이 울면서 말하기를 “전일에 그대가 우리 大夫人 위해 묘지명을 지었다. 이번에 大人께서 세상을 떠나시어, 오는 10월 丁酉日에 德水縣 鉢松 언덕에 합장하려는데, 幽宅을 빛내 드리는 일을 또한 그대에게 부탁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겠는가?” 하여, 이에 물러나와 쓴다.³⁸⁾

이처럼 益齋가 청명 과정에서 처남의 말을 자세히 인용한 것은 사위가 장인의 묘지명을 쓰는 것이 결코 자의가 아님을 해명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크다. 益齋가 청명의 말을 직접 화법으로 처리한 것은 許琮³⁹⁾과 權溥의 묘지명뿐이다. 許琮의 경우는 평소 친분이 없던 益齋가 묘지명을 쓰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청명자인 金倫의 말을 인용하였다. 그런데 權溥이 경우 처남말의 인용은 사위가 장인의 묘지명을 쓰는 것이 통례가 아님을 해명하는 이상의 것이 추측된다. 묘지명 곳곳에서 故人에 대한 칭송이 산견되고 있지만, 『高麗史』列傳의 인물평을 볼 때 과연 益齋가 李兆年의 경우처럼 진정에서 장인의 묘지명을 썼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사람됨이 원만하여 오래도록 銓衡을 맡았는데, 관직을 팔아 재산을 이루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 아버지 權昞의 청렴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였다.⁴⁰⁾

이러한 權溥의 사람됨을 익히 알고 있었을 益齋이고 보면 장인이라는 관계를 묘지명 서두에 가장 먼저 밝히고 청탁하는 처남의 말을 자세히 밝힌 것은 權溥의 묘지명을 써야 했던 자신의 입장에 대한 일종의 강력한 해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益齋가 기술한 權溥의 행적은 매우 간결하다.

益齋는 權溥가 15세에 進士가 되고 임금이 친림한 기묘년 과거에 급제한 것을 시작으로 그의 화려한 관직을 10여 개나 나열하였지만, 결국 한 번도 지방관에 나가지 않았고, 한 번도 탄핵받지 않은 것으로 그의 정치적 행

38) 李齊賢, 앞 글, “諸孤泣且告曰, ‘日君爲吾大夫人銘墓。今大人見棄, 將以後十月丁酉 合葬于德水縣鉢松原, 所以光昭幽堂又非君誰托?’。於是, 退而弑之。”

39) 李齊賢, 「許琮墓誌銘」, 『高麗墓誌銘集成』, 526면, “竹軒金政丞, 請於余曰, 故定安府院大君, 吾之親舅昆弟, 友愛甚篤, 不幸而不祿, 將以今至正五年五月丙申薨, 匄子詞鏡諸石以納幽墟。子必毋讓, 感其義, 爲□銘。”

40) 『高麗史』 권 107 列傳「權溥」, “爲人無圭角, 久典銓衡, 鬻爵營產, 時人以爲視其父昞之清懸遠也。”

적의 기술을 끝맺고 있다 이것은 표면상으로 權溥의 관직 생활이 순탄하고 성공적이었음을 칭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소 益齋는 중앙관을 맡기 전에 지방에서 직접 백성들의 고충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으므로, 한 번도 지방관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관직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탄핵 받지 않은 것도 해석학에 따라서는 반드시 칭찬이라고 볼 수 없다. 益齋의 묘지명 중 가장 많은 일화가 등장하는 金倫의 묘지명을 보면 불의와 싸우다 권신에게 좌천된 일과, 좌천된 곳에서도 선정을 베푼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탄핵받지 않았다는 것이 꼭 칭찬은 아닌 것이다. 崔誠之의 경우는 입성책의 저지라는 괄목할 만한 업적이 있었으므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을 은폐시키고 업적을 일화로 강조했지만, 權溥의 경우는 내세울 만한 정치적 업적이 특별히 없었으므로 어느 묘지명보다도 관작과 가족관계에 대한 기록이 가장 상세하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權溥가 85세까지 장수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버지 權昞의 기도 덕분에 좋은 사주를 타고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민 조상 태사 金幸이 태조를 보좌한 공로가 있어 성을 권씨로 내렸고, 대대로 그런 미덕을 성취하였다. 文淸公⁴¹⁾에 이르러 福靈寺의 水月菩薩佛像에게 기도하여 中統 3년(1262) 11월 11일 申時 무렵에 낳아 戊子·己未가 壬己의 天祿을 이면에서 밀어 주며 함께 발동하여 효과를 낸 것이니, 天機의 묘함이 이것이다.⁴²⁾

41) 權溥의 아버지 權昞(1228-1311)으로 청렴결백 했고, 만년에 禪興寺로 출가하였다.

42) 李齊賢, 「推誠翊祚同德輔理功臣重大匡脩文殿大提學學領都僉議使司永嘉府院君贈諡文正公權公墓誌銘」, 『益齋亂藁』 권7, “遠祖太師金幸, 左太祖有功, 賜姓權, 世齊其美, 以至文淸, 禱于福靈寺水月菩薩像, 以中統三年仲冬十有一日, 日將暉而生公 戊子己未, 虛拱壬己之祿, 而互衝發之, 天機之妙如此”

표면적으로 보면 부모를 잘 만났고 그들의 정성에 의해 좋은 사주를 타고 났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본인의 노력보다는 타고난 복 때문에 성공하게 되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서두에 장인과 사위라는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진 경위를 쓴 청명 과정에서 처남의 말을 자세히 인용하고 있다는 점과 관작·가족에 대한 소개가 길며 타고난 때가 좋았음을 기술한 것을 볼 때, 일화 중심의 묘지명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보이며 동일한 유형의 崔文度의 묘지명과 비교할 때도 차이가 난다. 이는 權溥가 살아 온 일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충신을 이상적인 관리라고 생각하는 益齋의 가치관에서도 비롯된 결과라 하겠다.

4. 결론

益齋 李齊賢은 고관의 묘지명을 서술하는 데 있어 故人の 업적과 인품을 일화에 의해 묘사하는 방식과 행적을 평면적으로 기술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화를 사용한 유형은 李兆年·崔誠之·羅益稀·金倫의 묘지명으로 복잡다난 했던 元 간섭기에 고려 왕조를 위해 충성을 했던 그들의 정치적 업적과 고매한 인품이 중심 주제이다. 충성심과 관련된 일화에는 益齋가 직간접적으로 등장하며, 비록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도 깊이 연루되어 있어 일화는 故人뿐만 아니라 찬술자인 益齋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益齋는 元과의 외교상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상황에서 함께 고락을 같이 했던 인물들을 칭송하기에는 행적의 평면적 기술로는 미흡했기 때문에 일화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것은 관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관작도 수명도 아닌 충성심과 고매한 인품이라는 益齋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故人和 관련된 행적을 평면적으로 간결하게 기술한 유형은 崔文度 · 權溥의 묘지명으로 주로 官爵 · 德 · 壽를 칭송하는 ‘達尊之三者’가 중심 주제가 되는 의례적인 형태이다. 崔文度의 행적을 보면 왕을 성실하고 공경하게 모신 것을 알 수 있으나, 고려의 안위와 관계되는 극적인 사건을 해결한 행적은 없으므로, 평면적 기술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權溥의 경우는 행적이 15세에 進士가 되고 임금이 친림한 기묘년 과거에 급제하여 한 번도 지방관에 나가지 않았고 탄핵받지 않은 것뿐이므로, 여타 묘지명에 비해 관작 · 가족에 대한 소개가 상세하다.

이처럼 益齋가 찬술한 고관의 묘지명에서 서술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관리의 최고 덕목은 충성심이라는 기준으로 故人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서술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즉 찬술의 대상은 故人의 삶이지만, 형상화되는 것은 益齋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자신의 가치인 것이다.

【참고문헌】

■ 자료

- 李齊賢, 『益齋亂藁』.
徐居正, 『東文選』.
姚鼐, 『古文辭類纂』.
曾國藩, 『經史百家雜鈔』.

■ 저서 및 논문

- 김춘주, 「『東文選』 所載 墓誌銘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99.
오수형, 「柳宗元散文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1992.
이정임, 「高麗時代 碑誌 文學 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1995.
정순희, 「高麗 墓誌의 敘述的 特性 -『高麗史』 立傳者를 대상으로-」, 정신문
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출판부, 1998.
吉川幸次郎·小川環樹, 『中國の散文』, 筑摩書房, 1962.

Abstract

The way of describing in the inscription on a tomb stone by
Ikjae Jaehyeon Lee

Yoon, Sang-Lim

Ikjae Jaehyeon Lee describes through anecdote on tomb stone the history of deceased persons who were royal for Koryeo Dynasty in the intricate period when Won dynasty interfered with. The anecdote that publisher Ikjae saw and heard in person describes the royalty and dignity of the deceased who did not care his own security to save Koryeo in critical situation. Ikjae appears on the anecdote relating to royalty directly and indirectly and is deeply involved in the accident that is the background of the anecdote, though not revealing on the surface. So the anecdote is significant to Ikjae as well as the deceased.

If a deceased is ordinary and does not show any great achievement for example, being royal at a critical situation, he describes the history of the deceased in a simple and plain manner. In such case, the theme is "the noblest three conditions on earth" that is government office, morals and longevity. The process of royal calling to office, government office and family circumstances are described in detail while one's contribution is negligent.

The way of describing in the inscription on a tomb stone that Ikjae published was changed because the standard by which a deceased is evaluated is royalty and a way of describing is also determined according to it. In short, the object of publication is the life of a deceased, but what is formed is the value that Ikjae seeks through his own life.

Key Word

describing, anecdote, royalty, publisher, the value